

채도 콘트라스트 배색과 스트라이프 무늬 변화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이미지 연구

문 주 영

한국실크연구원 연구사업본부 디자인개발팀 연구원

A Study of the Differing Images of Wearers according to Differences of Chroma Contrast Coloration and Stripe Patterns

Ju-Young Moon

Researcher, Dept. of Design Development, Division of R&D, Korea Silk Research Institute

(투고일: 2009. 9. 1, 심사(수정)일: 2009. 12. 14, 게재확정일: 2009. 12. 17)

ABSTRACT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casual and formal style clothes of stripe pattern giving variety by pattern direction, pattern width, and contrast coloration have an effect on image of wearers. For this, 192 stimuli were made and 1200 testee evaluated them using semantic differential scale. As a result, five image dimensions were drawn as a factor of attractiveness, gracefulness, activeness, visibility, and tenderness. Unlike the value contrast previously researched, it showed that chroma contrast coloration which was interacted with a color tone contrast coloration had an effect on all the 5 image dimensions. This result was recognized as significant clothes clues in evaluating the image of stripe wearers. Besides, clothing style, stripe pattern, and contrast coloration were made clear as an efficient parameter in image presentation of clothing wearers.

Key words: clothing style(의복스타일), stipe direction(스트라이프 방향),
stripe width(스트라이프 폭), chroma contrast(채도 콘트라스트),
clothing coloration(의복 배색)

I. 서론

패션제품에 나타나는 선은 크게 실루엣선과 실루엣 안의 선으로 나누어진다. 시각적 무게를 느끼게 하는 선은 실루엣 안에 있는 선들로 주로 직선, 곡선, 사선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직선 스트라이프는 현대적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로 제품소유와 착용에 있어 기본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 받고 있다. 그것은 스트라이프의 배색, 간격, 넓이, 방향, 배열방식에 따라 시각적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착용자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²⁾³⁾⁴⁾⁵⁾.

패션정보 사이트에서도 스트라이프 문양은 변화를 통해 시즌마다 중요한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패션 패브릭 경향을 보면, 05 S/S 시즌에는 멀티컬러의 스트라이프, 06 S/S 시즌에는 밝고 가벼워 보이는 스트라이프, 07 S/S 시즌에는 1:1 강한 컬러 대비를 이루는 마린 스트라이프와 소프트 스트라이프, 08 S/S 시즌에는 옅티컬 스트라이프, 0809 F/W 시즌에는 입체적인 스트라이프, 2009 F/W 시즌에는 밝고 경쾌한 스트라이프가 중요한 패브릭 패턴으로 부각되었다 (Season's fashion trend, 2005~2009: 08 S/S Trend Seminar, 2007)⁶⁾⁷⁾. 다시 말해, 스트라이프 문양의 의복은 현대적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 받고 있다는 것이다.

색채도 인간의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이미지 전달 도구로 상품의 경쟁력과 마케팅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제품도 색상, 명도, 채도의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색의 밸런스를 통해 상품가치는 달라지게 된다. 색의 삼속성 중 채도는 색과장의 강약을 나타내는 인자로 채도가 높은 색은 강렬하며 일반적으로 흥분된 반응을 유발시키고, 채도가 낮은 색은 보다 중성적이고 차분하므로 섬세하고 안정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보색의 효과라도 채도가 낮을 때에는 섬세하고 차분하게 보인다고 하였다⁸⁾. 또, 스트라이프와 색채와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⁹⁾¹⁰⁾¹¹⁾¹²⁾에서 연구자에 따라 사용된 변수들은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배색변화를

통해 스트라이프의 강약이나 리듬감이 달라져 시각적 효과도 다양하게 변화된다고 하였다. 보색관계에 있는 콘트라스트 배색은 유사배색에 비해 조화나 균형을 이루기 어렵지만 톤 변화를 통해 현대감각에 맞는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¹³⁾. 이러한 관점에서, 동일한 스트라이프 문양도 색과 톤조합에 따라 착용자의 이미지가 다르게 인식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과 폭을 달리하여 문양과 바탕의 색을 콘트라스트 배색, 그 중에서도 색의 맑고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채도 콘트라스트로 배색시켜 의복착용자의 이미지가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는지 그 요인구조를 밝히고, 이들 단서 중 어떤 단서들이 상호작용하여 착용자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의복배색이론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상품기획시 변화를 추구하는 패션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스트라이프 문양

스트라이프는 주위로부터 구분 짓거나 두드러지게 하는 특징 때문에 과거에는 주로 국가나 조직, 팀의 구성원이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또 스쿨 룩이나 운동복에도 많이 사용되고 계급이나 연대, 국가의 주체성을 상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사용되어 왔다. 한 심리서적에 의하면 스트라이프는 구성원이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 외에도 꿈속에서 본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과 배색을 통해 자신의 심리상태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해몽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컬러, 비율, 방향의 다양한 변화로 스트라이프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¹⁴⁾.

복식사전¹⁵⁾에서 스트라이프 문양의 의미를 살펴보면, '기하학적 무늬의 대표적인 모티프로 직선을 평행으로 배열하여 구성한 것'으로 한마디로 일축하면 표면이 수직선, 수평선 또는 사선에 의해 부분과 부

분으로 나누어질 때 생기는 문양임을 알 수 있다. 스트라이프의 다양한 형태는 스트라이프의 폭 즉, 선과 선사이의 공간, 선의 넓이, 종류 등으로 변화를 줄 때 나타난다. 이처럼 단순하지만 다양한 형태 때문에 스트라이프는 인간의 조형 적응과 관련하여 각 민족 고유의 정서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다¹⁶⁾.

이러한 다양한 선들이 디자인 요소와 어떻게 조합되어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되는지 살펴보면, 흑백 스트라이프 문양의 원피스 드레스는 수평 스트라이프와 수직 스트라이프 모두 사선 스트라이프나 수평과 수직의 복합 스트라이프 문양이 배열된 원피스 드레스보다 체형을 굵고 넓게 보이게 하였다. 특히, 수평 스트라이프는 아름답지 않고 싫어하는 문양으로 대개 부정적인 시각효과를 준다고 하였다¹⁷⁾.

스트라이프를 9가지 측면인 선의 이동경로, 두께, 편평함, 연속성, 가장자리의 날카로움, 가장자리의 윤곽, 견고성, 길이, 방향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¹⁸⁾에서 이동경로가 직선인 경우 경직된, 직접적인, 엄격한 심리적 효과를, 방향이 수직인 경우 길고 좁아 보이는, 수평인 경우 짧고 넓어 보이는 물리적 효과를,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무게를 더하는 물리적 효과 때문에 힘이 있고 공격적이며 단호한 심리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스트라이프 문양은 문양의 방향과 폭, 배열방법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통해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시각적 착시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콘트라스트 배색효과

색의 콘트라스트와 대비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는 것으로, 콘트라스트끼리 배색시켰을 경우 강한 인상을 주는 배색이 된다¹⁹⁾. 콘트라스트 배색은 톤 온 톤, 톤 인 톤, 무채색과 유채색, 무채색과 무채색의 배색방법보다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작용하여 조화감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의 영향이 가장 많이 나타나 배색조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배색방법이라고 하였다²⁰⁾.

本明寬²¹⁾은 색상차가 클 때는 스트라이프 의복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명도차에 의한 영향이 적고, 채도차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김주은²²⁾은 콘트라스트 배색조합에서 색상, 명도, 채도 변화가 다양한 배색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도 채도를 높인 색상 콘트라스트 배색은 강하고 화려한 느낌을 주며, 반대로 채도를 낮춘 배색은 침착하고 엄중하며 중후한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패션 디자인의 색채조합에 따른 색채조화 유형화 연구²³⁾에서도 유사, 대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속성은 색상 차, 톤 차인데, 색상차가 클 경우에는 채도변화에 의한 색채조합을 더 대조적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채도증가에 따라 선명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색상차와 채도조합이 색채조화의 특수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색상, 명도, 채도의 차를 크게 한 배색도 대비현상에 의해서 강렬한 느낌을 준다. 그 중 색상 콘트라스트는 보색관계의 배색으로 화려하고 강한 느낌과 분명하고 동적인 느낌을 준다²⁴⁾. 배색의 톤 차에 따른 색채균형 연구²⁵⁾에서는 색조차가 큰 대비, 대조 색조끼리의 보색배색, 명도 및 채도가 낮은 색과 높은 색과의 조합을 가장 균형적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같은 색상배색이라도 톤 변화에 따라 그 배색 효과는 전혀 다르게 인식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스트라이프 문양과 콘트라스트 배색은 그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Asch의 형태적 접근이론과 같이 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²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색상은 색의 삼원색과 먼셀색상환에서 180° 반대되는 콘트라스트 색상 배색으로, 톤도 콘트라스트 채도 배색으로 조합한 스트라이프 문양의 의복을 피험자가 착용할 경우, 착용자의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하고자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논문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채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스트라이프 의복착용자의 이미지 차원을 밝히고 그 이미지에 미치는 단서의 영향을 밝힌다.

[연구문제 2] 문양방향과 폭, 의복스타일, 콘트라스트 색상 배색과 채도 톤조합이 의복착용자의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힌다.

2. 실험절차 및 방법

1) 자극물 선정 및 제작

본 연구에 사용된 의복착용자의 모델은 제 4차 한국표준체위예비조사 자료와 팽숙경, 강경자²⁷⁾가 사용한 기준을 참고로 표준체형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20대 여성 3명을 선정하여 30명의 의류학 전공 대학원생과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평가집단에게 평가하게 한 후, 표준체형에 가장 근접한 키 162cm, 몸무게 52kg의 20대 여성 1명을 최종선정 하였다. 얼굴형은 '얼굴, 한국인의 낮'에서 제시하는 한국인의 평균 얼굴 기준인 머리전체 길이 233.38mm, 얼굴의 길이 194.05mm, 이마의 가로 폭 120.66mm에 가까운 계란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얼굴색상은 최영훈이 제시한 한국인의 피부색으로 가장 많은 색채로 나타난 6.5YR 7/3으로 하였다²⁸⁾.

먼저 의복스타일은 평가집단에 의해 2가지 스타일군(① 티셔츠/청색데님 팬츠, 재킷/청색데님 스커트, ② 티셔츠/베이지색 면 팬츠, 재킷/베이지색 면 스커트)이 선정되었는데 2가지 스타일군으로 pre-test를 한 결과, 스타일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20대 여대생들의 소유정도와 착용빈도가 높고 스트라이프 문양을 표현할 수 있는 티셔츠/청색데님 팬츠를 캐주얼스타일로, 재킷/청색데님 스커트를 포멀스타일로 최종 선정하였다. 재킷의 칼라는 테일러드 칼라로 통제하고, 또 스커트 길이는 무릎 아래 길

이로 통제하였다.

상의는 스트라이프 문양으로 통제하고 문양의 폭과 방향에 변화를 주었다.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은 재킷이나 티셔츠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가로, 세로 방향으로 구분하여 수평선, 수직선 두 종류로 제한하였다. 폭은 선행연구²⁹⁾(30/31)와 2005년~2007년 패션 컬렉션, 2005~2006년 서울, 대구 지역의 원단시장에 시판되고 있는 스트라이프 문양의 폭을 참고로 하여 각각 1.6, 4.0, 6.4, 10.0cm 4가지로 구분하고 문양의 바탕 즉, 폭과 폭사이의 간격은 문양 폭과 동일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의복색상 중 하의인 스커트와 바지는 pre-test를 통해 청색 데님 소재로, 상의는 스트라이프 문양의 폭과 간격은 1:1 비율로, 배색은 색상과 채도 톤이 콘트라스트 배색이 되도록 하였다. 즉 색상은 색의 3원색인 빨강, 노랑, 파랑을 중심으로 먼셀색상환에서 그와 180° 보색을 이루는 빨강/청록, 노랑/남색, 파랑/주황의 3가지배색 조합으로 하였다. 톤은 유사채도는 채도차가 3전후, 대조채도는 채도차를 7이상으로 제한한 川崎秀照³²⁾의 이론과 채도차가 크다는 것 역시 5이상으로 제한한 本明寛³³⁾의 이론에 근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색상 콘트라스트 배색을 기준으로 채도 콘트라스트 배색은, 명도의 톤 차이는 최소화하여 색상의 채도차가 6 이상이 되도록 하여 각각 Dp/G, G/Dp, B/Lg, Lg/B 4가지 톤 배색으로 하였다. 이상의 색상과 톤을 한국표준색표집³⁴⁾에 근거하여 상의 스트라이프 문양에 사용된 색상과 톤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먼저 선정된 두 가지의 의복스타일을 모델에게 착용시켜 카메라(Nikon Coolpix 8800VR)로 촬영한 후, 스트라이프 문양방향과 문양 폭이 각기 다르게 조합되도록 Nedgraphics CAD system과 Adobe Photoshop CS program을 사용하여 <표 2>와 같이 16개의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색상과 채도가 콘트라스트로 배색 된 컬러를 티셔츠와 재킷에 각각 수직, 수평무늬가 되도록 맵핑시켜 최종자극물을 완성시켰다.

따라서 자극물은 독립변인인 2개의 의복스타일, 2개의 문양방향, 4개의 문양 폭, 3개의 색상조합, 4개

〈표 1〉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색상과 톤

색상조합		색상조합			
		5R(빨강)-5BG(청록)	5Y(노랑)-5PB(남색)	5B(파랑)-5YR(주황)	
색상 콘트라스트	vivid-vivid(V/V)	5R 4/14- 5BG 5/10	5Y 8.5/14- 5PB 4/12	5B 5/10 - 5YR 6/14	
	deep-grayish(Dp/G)	5R 2.5/8 - 5BG 5/2	5Y 5.5/8 - 5PB 5/2	5B 3/8 - 5YR 5/2	
채도 콘트라스트	grayish-deep(G/Dp)	5R 5/2 - 5BG 3/8	5Y 6/2 - 5PB 3/8	5B 5/2 - 5YR 4/8	
	bright-light grayish (B/Lg)	5R 6.5/10- 5BG 7.5/2	5Y 8.5/10 - 5PB 8/2	5B 7/8 - 5YR 8/2	
	light grayish-bright(Lg/B)	5R 8/1.5 - 5BG 7/8	5Y 8/1.5 - 5PB 6/10	5B 7.5/2 - 5YR 7/10	

〈표 2〉 자극물에 사용된 스트라이프 문양

문양 폭 의복 스타일	1.6cm		4.0cm		6.4cm		10.0cm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캐주얼웨어 : 티셔츠/ 팬츠								
포멀웨어: 재킷/ 스커트								

의 채도 톤조합을 조합하여 192개의 자극물이 가로 14.5cm, 세로 21cm의 크기로 제작되었다. 이때 자극물의 배경과 피험자의 외모는 인상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배경색은 white로 처리하고 피험자의 헤어스타일, 얼굴, 자세, 연령을 통제하여 Fuji Xerox Phaser 8500N으로 출력하였다.

2) 실험설계 및 자극물평가

본 실험은 5원 요인설계로 스트라이프 문양방향, 폭, 의복스타일, 색상 콘트라스트, 채도 콘트라스트를

독립변인으로 하였다. 총 192개의 자극물을 96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실험조합에 2개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하나의 실험조합에 포함된 자극물은 색상과 톤의 조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하여 각각자에게 제시되는 자극물의 순서를 달리하였다. 각 실험조합별로 피험자 수는 12명씩 피험자간 설계에 의해 무선배치 하였다.

3) 의미미분척도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의복착용자와 인상

형성에 관한 선행연구³⁵⁾³⁶⁾³⁷⁾³⁸⁾에서 사용된 형용사쌍과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형용사쌍 10개를 추가하여 총 41쌍의 형용사쌍이 선정되었다. 자극물 속의 착용자 이미지 측정은 의미분척도로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피험자는 서울, 부산, 경남에 거주하는 여대생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미비한 자료는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152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06년 5월~9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스트라이프 문양방향과 폭, 의복스타일, 색상과 채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이미지 차원을 밝히기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용하였다. 각 이미지차원별로 용어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5가지 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5원변량 분석과 다중분류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채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스트라이프 의복착용자의 이미지

1) 의복착용자의 이미지 차원

채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스트라이프 문양의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해 문양방향과 폭, 의복스타일, 색상조합, 채도 콘트라스트 톤조합에 변화를 주어 192개의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자극물은 41개의 형용사쌍을 의미분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모형과 Varimax방법에 의해 요인분석한 결과 27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었고, 아이겐값이 1.0이상인 형용사쌍들이 5개의 요인으로 분

류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도출된 이미지 차원의 신뢰도 계수는 .93, .84, .87, .71, .61로 타당한 자료로 평가되었다.

요인 1은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21.2%로 5개의 요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요인으로, 이에 포함된 형용사쌍은 구매하고 싶은-구매하고 싶지 않은, 세련된-촌스러운, 보기 좋은-보기 싫은, 매력 있는-매력 없는, 선호하는-선호하지 않는 등 8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매력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매력성 구성인자는 스트라이프의 색상³⁹⁾,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 연구⁴⁰⁾와 같은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단정한-단정치 못한, 정숙한-정숙하지 않은,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품위 있는-품위 없는, 신중한-신중하지 않은 등 7개 형용사쌍으로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연구의 품위성 요인에 포함된 형용사쌍과 같아 '품위성'이라 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4.2%로 나타났다.

요인 3은 동적인-정적인, 진보적인-보수적인, 외향적인-내향적인, 발랄한-점잖은 등의 6개 형용사쌍으로, 색상,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연구의 활동성 차원에 포함된 형용사쌍과 유사하여 '활동성' 차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4.1%로, 색상, 명도 콘트라스트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비교적 낮았다.

요인 4는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과 마찬가지로 강한-약한, 강렬한-은은한, 대담한-소심한의 3개의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현시성'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8.0%로 나타났다.

요인 5도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연구에서의 은유성 차원과 마찬가지로 따뜻한-차가운, 감성적인-이성적인, 부드러운-딱딱한의 3개의 형용사쌍만을 포함하고 있어 '은유성'이라 하였고,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6.4%로 나타났다.

회귀모형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요인점수는 높을수록 매력성 요인에서는 구매하고 싶고, 세련되고, 보기 좋고, 매력 있는 이미지로, 품위성 요인에서는 단정하고, 정숙하고, 지적이고, 품위 있는 것으로, 활동성 요인에서는 외향적이고, 시원하고, 동적이며, 사교적인 것으로, 현시성 요인에서는 강하고, 강렬한

〈표 3〉 채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스트라이프 의복착용자의 이미지 차원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통성(h ²)
요인 1. 매력성 요인						
구매하고 싶은-구매하고 싶지 않은	<u>.84</u>	.07	.08	-.05	.09	.73
세련된-촌스러운	<u>.82</u>	.20	.17	.00	.06	.74
보기 좋은-보기 싫은	<u>.77</u>	.29	.19	-.09	.10	.74
매력있는-매력없는	<u>.76</u>	.15	.22	.18	.14	.70
감각있는-감각없는	<u>.75</u>	.19	.27	.10	.10	.69
선호하는-선호하지 않는	<u>.75</u>	.16	.28	.02	.14	.68
자연스러운-어색한	<u>.74</u>	.29	.21	-.12	.09	.70
유행에 앞선-유행에 뒤떨어진	<u>.73</u>	.10	.22	.22	.13	.66
요인 2. 품위성 요인						
단정한-단정치못한	.04	<u>.73</u>	.21	-.10	.06	.60
정숙한-정숙하지 않은	-.04	<u>.73</u>	-.20	-.03	.15	.60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32	<u>.67</u>	.06	.14	-.03	.58
품위있는-품위없는	.32	<u>.66</u>	-.02	.05	-.01	.54
깔끔한-깔끔하지 않은	.22	<u>.65</u>	.37	-.09	.03	.62
신중함-신중하지 않은	.22	<u>.65</u>	-.10	.29	.00	.57
안정된-불안정한	.30	<u>.64</u>	.30	-.11	-.01	.60
요인 3. 활동성 요인						
동적인-정적인	.10	.01	<u>.73</u>	.16	.12	.58
진보적인-보수적인	.28	.03	<u>.71</u>	.19	.18	.64
외향적인-내향적인	.24	.11	<u>.70</u>	.33	.13	.68
시원한-답답한	.35	.17	<u>.70</u>	.08	.00	.64
사교적인-비사교적인	.32	.33	<u>.66</u>	.05	.15	.67
발랄한-점잖은	.27	-.18	<u>.64</u>	.13	.33	.63
요인 4. 현시성 요인						
강한-약한	.03	.09	.08	<u>.82</u>	-.03	.69
강렬한-은은한	-.05	-.10	.20	<u>.72</u>	.06	.57
대담한-소심한	.11	.07	.34	<u>.67</u>	.13	.61
요인 5. 온유성 요인						
따뜻한-차가운	.14	.11	.11	.06	<u>.78</u>	.64
감성적인-이성적인	.14	-.10	.23	.16	<u>.70</u>	.59
부드러운-딱딱한	.30	.28	.26	-.22	<u>.57</u>	.60
고유치	5.72	3.84	3.82	2.16	1.74	17.28
전체 변량의 %	21.20	14.21	14.13	8.01	6.44	64.00
설명된 변량의 %	33.13	22.20	22.08	12.52	10.07	100.00

것으로, 온유성 요인에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지각됨을 의미한다. 도출된 5개의 이미지 차원이 전체 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4.0%로 나타났다. 특히 매력성, 품위성, 활동성 요인의 설명력은 49.5%로 나타나 채도 콘트라스트 배색에서 중요한 차원으로 규명되었다.

2) 의복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단서의 영향

응답자를 대상으로 단서인 의복스타일, 스트라이프

프 문양의 방향과 폭, 색상 및 채도 톤조합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5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문양 폭을 제외한 4가지 단서 모두 착용자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도 톤조합은 모든 이미지 차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이미지 차원별로 스트라이프 의복착용자의 이미지 형성을 영향을 주는 단서간의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1~10에 제시하여 그 결과

<표 4> 채도 콘트라스트 배색의 스트라이프 문양이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변량원		요인		품위성요인		활동성요인		현시성요인		온유성요인	
		평균 제공합	F값	평균 제공합	F값	평균 제공합	F값	평균 제공합	F값	평균 제공합	F값
주효과	문양방향 (A)	44.19	46.66***	22.90	25.86***	1.52	1.82	48.66	53.99***	15.37	17.75***
	문양폭(B)	1.08	1.14	.54	.61	.94	1.13	.54	.60	.17	.20
	의복 스타일 (C)	.19	.20	134.21	151.54***	1.00	1.19	21.60	23.97***	3.54	4.09
	색상조합 (D)	.45	.47	.90	1.02	8.11	9.71***	2.12	2.35	5.72	6.60**
	채도톤 조합 (E)	8.96	9.46***	6.06	6.84***	79.27	94.95***	9.72	10.79***	33.02	38.11***
2원 상호작용 효과	A×B	.42	.44	1.42	1.60	.86	1.03	1.08	1.20	1.47	1.70
	A×C	6.26	6.61**	3.96	4.47*	.65	.78	1.04	1.15	.74	.85
	B×C	2.43	2.57	3.30	3.72*	1.77	2.12	1.76	1.96	.05	.05
	C×E	.55	.58	4.96	5.60**	3.36	4.03**	.94	1.04	.30	.35
	D×E	2.57	2.72*	5.07	5.73***	2.17	2.60*	14.15	15.70***	20.50	23.66***
3원 상호작용 효과	A×C×D	.55	.58	2.74	3.10*	.11	.13	1.85	2.05	.80	.92
	A×D×E	1.19	1.25	1.38	1.55	.61	.73	2.46	2.73*	.89	1.03
	B×C×D	2.13	2.24*	.73	.82	1.37	1.65	.36	.40	.97	1.12
	B×D×E	.67	.71	.64	.72	1.60	1.92*	.70	.77	.71	.82
4원 상호작용 효과	A×B×C×E	1.48	1.56	.69	.77	1.93	2.31*	.83	.92	.50	.57
	A×C×D×E	.88	.93	.25	.28	.89	1.06	4.91	5.45***	1.34	1.54
MCA분석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문양방향 (A)	수 평	.15		.11		.03		-.16		.09	
	수 직	-.15	.15	-.11	.11	-.03	.03	.16	.16	-.09	.09
문양폭 (B)	1.6cm	.02		-.03		.01		.01		.01	
	4.0cm	.05		.02		.03		.03		-.02	
	6.4cm	-.01		-.02		-.06		-.05		-.01	
	10.0cm	-.06	.04	.03	.03	.03	.04	.01	.03	.03	.02
의복 스타일 (C)	캐주얼	-.01		-.27		-.02		-.11		.04	
	포멀	.01	.01	.27	.27	.02	.02	.10	.11	-.04	.04
색상조합 (B)	빨강/청록	-.03		.02		-.02		-.04		.08	
	노랑/남색	.01		-.04		.12		-.03		.02	
	파랑/주황	.02	.02	.02	.03	-.10	.09	.07	.05	-.10	.08
채도톤 조합 (C)	Dp/G	-.16		.04		-.36		.09		-.14	
	G/Dp	-.07		.14		-.34		.14		-.25	
	B/Lg	.15		-.12		.38		-.04		.36	
	Lg/B	.07	.12	-.06	.10	.33	.35	-.18	.12	.02	.23
Multiple R ²		.15		.20		.25		.19		.22	
Multiple R		.38		.45		.50		.43		.47	

* p<.05. ** p<.01. *** p<.001

를 고찰하였다.

(1) 매력성 차원

〈표 4〉에서 채도 콘트라스트에 대한 매력성 차원을 보면, 문양방향은 색상, 명도 콘트라스트에 이어 중요한 주효과로 작용하였다. 특히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톤의 주효과가 채도 콘트라스트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을 MCA 평균값의 차를 통해 살펴보면, 문양방향은 색상,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과 마찬가지로 수평일 때 구매하고 싶고, 세련되고, 보기 좋고, 매력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채도 톤조합은 B/Lg 톤과 반대 톤조합인 Lg/B 톤일 때 긍정적으로, Dp/G 톤과 반대 톤조합인 G/Dp 톤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즉 채도 콘트라스트 배색이라도 채도 차가 더 크고 명도가 더 높은 콘트라스트 배색, 즉 B/Lg, Lg/B이 상대적으로 낮은 Dp/G, G/Dp 톤조합보다 더 매력 있는 톤 배색으로 평가되었다. 문양방향과 채도 톤조합은 각각 매력성 차원에서 독립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의복스타일과도 상호작용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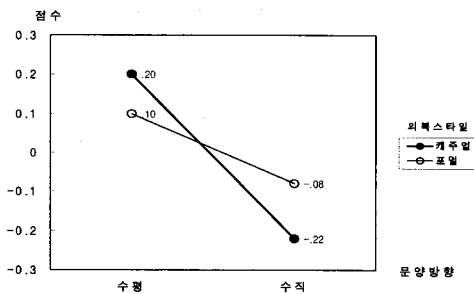
먼저, 문양방향과 의복스타일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1〉에서 보면, 의복스타일이 캐주얼인 경우에 포멀웨어보다 문양방향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 스트라이프의 문양방향을 수평으로 하는 것이 매력 있는 이미지 연출에 매우 효과적인 반면, 수

직으로 하면 촌스럽고 매력 없는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매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의복스타일보다 문양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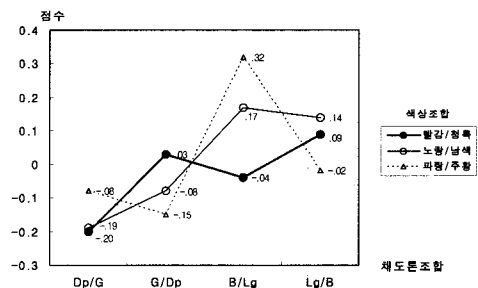
다음으로, 색상조합과 채도 톤조합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2〉에서 보면, 채도 톤조합에 따라 색상조합 간에는 일관성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색상조합을 각각 Dp/G가 되도록 채도대비 시켰을 때 어떤 색상 콘트라스트로 배색되더라도 멋있고 자연스럽지 못하여 매력 없는 이미지로 평가되고, 이러한 경향은 파랑/주황의 배색보다 빨강/청록, 노랑/남색배색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빨강/청록 색상조합은 노랑/남색, 파랑/주황 배색과는 달리 채도를 Dp/G 톤과는 반대인 G/Dp 톤으로 대비시켰을 때 매력 있는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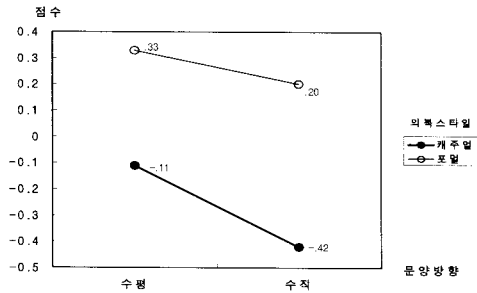
G/Dp과 Dp/G의 채도 톤조합과 색상조합, B/Lg와 Lg/B의 채도 톤조합과 색상조합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색상조합이 빨강/청록인 경우에는 채도 톤조합을 G/Dp, Lg/B로, 노랑/남색은 B/Lg, Lg/B로, 파랑/주황은 B/Lg로 할 때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반면에 빨강/청록은 Dp/G, B/Lg로, 노랑/남색은 G/Dp으로, 파랑/주황은 Dp/G, G/Dp, Lg/B 톤으로 콘트라스트 배색될 때 부정으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동일한 색상배색도 채도의 톤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채도 톤조합도 어떤 색상으로 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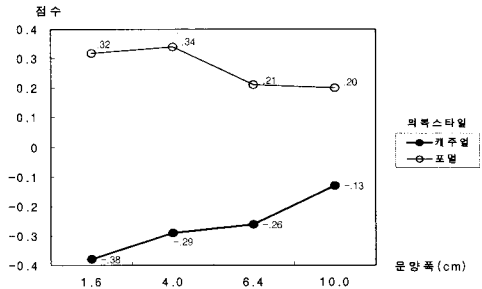
〈그림 1〉 매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문양방향과 의복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2〉 매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색상조합과 채도 톤조합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3〉 품위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문양방향과 의복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4〉 품위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문양 폭과 의복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

하는지에 따라 매력성 이미지는 크게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채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이미지를 매력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는 의복스타일보다 문양방향을 고려하여 수평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색상조합과 채도 톤조합이 중요한데 채도 차가 더 크고 명도가 더 높은 톤으로 구성된 B/Lg의 파랑/주황과, B/Lg와 Lg/B의 노랑/남색의 배색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배색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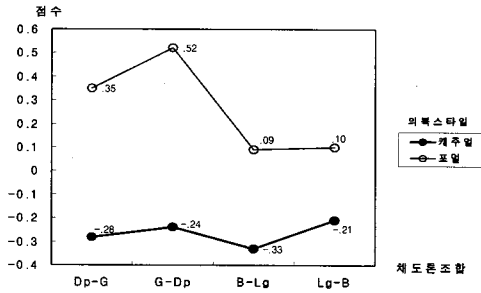
(2) 품위성 차원

품위성 차원을 <표 4>에서 살펴보면, 스트라이프 문양의 방향과 의복스타일, 채도 톤조합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 가지 단서 모두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였다. 특히 문양방향은 색상 콘트라스트, 명도 콘트라스트연구에서는 모두 독립적인 변수로 주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채도 콘트라스트 조합에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고 상호작용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색상조합과 문양 폭은 독립적인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으나 색상조합은 채도 톤조합, 문양 폭은 의복스타일과 상호작용하여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편차 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문양 방향은 수평, 의복스타일은 포멀웨어, 채도 톤조합은 명도 톤이 낮은Dp/G, G/Dp일 때 품위있는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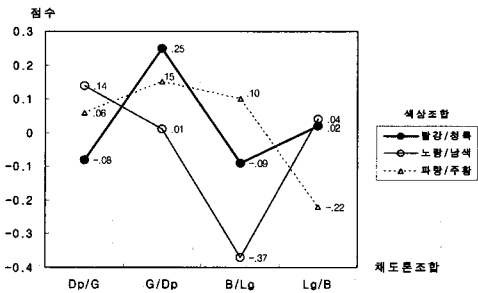
품위성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문양방향과 의복스타일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3>에서 살펴보면, 문양방향에 관계없이 의복스타일이 포멀인 경우 단정하고, 정숙하고, 품위 있는 것으로, 캐주얼인 경우에는 단정치 못하고, 정숙하지 않고, 품위 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의복스타일이 캐주얼스타일 경우에는 포멀스타일에 비해 비교적 문양방향에 따른 이미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품위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문양방향보다는 의복스타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문양방향은 수평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의복스타일과 채도 톤조합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4>에서 보면, 문양의 폭에 크게 관계없이 의복스타일이 포멀인 경우에는 긍정적인 품위성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문양 폭은 의복스타일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의복스타일이 포멀웨어인 경우에는 1.6cm, 4.0cm로 문양 폭이 좁을 때 더 품위있는 것으로, 캐주얼웨어인 경우에는 폭이 좁아질수록 품위 없는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문양 폭과 의복스타일간의 상호작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문양의 폭이 넓을 때는 의복스타일 간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문양의 폭이 좁아질수록 의복스타일 간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의 의복스타일과 채도 톤조합의 상호작용에서도 의복스타일은 채도 톤조합보다 영향력이 큰 단서임을 알 수 있다. 의복스타일이 포멀인 경우, 4 가지 톤조합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지각되는데 비해 캐



〈그림 5〉 품위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스타일과채도 톤조합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6〉 품위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색상조합과 채도 톤조합의 상호작용효과

주어웨어는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의복스타일이 포털일 때 채도의 톤조합은 가벼운 B/Lg, Lg/B보다 비교적 무겁고 칙칙한 G/Dp, Dp/G 톤조합에서 더 품위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의복스타일과 채도 톤조합의 상호작용에서도 의복스타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타일 간의 차이는 채도 톤조합이 B/Lg, Lg/B일 때 보다 Dp/G, G/Dp 톤조합 일 때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그림 4~5의 결과를 통해 스트라이프 문양 폭이나 방향, 채도 톤조합보다 의복스타일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색상조합과 채도 톤조합의 상호작용을 〈그림 6〉에서 살펴보면, 4가지 채도의 톤조합 중 G/Dp 톤은 3가지 색상조합 모두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색상조합 중에서도 G/Dp 톤의 빨강/청록이 가장 품위 있고 다음으로 파랑/주황, 노랑/남색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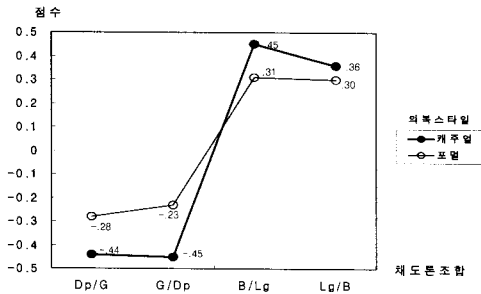
G/Dp의 톤조합을 반대로 조합한 Dp/G는 비교적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Dp/G 톤의 빨강/청록은 3가지 색상배색 중 가장 품위 없는 것으로, 노랑/남색은 가장 품위 있는 이미지로 지각되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노랑/남색 조합은 B/Lg 톤에서 아주 품위 없는 이미지로 지각된 반면에 Lg/B 톤조합에서는 3가지 색상배색 중 가장 품위 있는 배색으로 지각되었다. 이는 같은 톤조합이라도 배색되는 2가지 색상 중 어떤 색상의 톤을 높게 또는 낮게 하는지에 따라 품위성 이미지는 다르게 지각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동일한 색상조합도 채도 톤조합에

따라, 동일한 채도 톤조합도 색상조합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색상 콘트라스트 배색조합과 채도 콘트라스트 조합 톤은 각각 따로 지각되지 않음을 입증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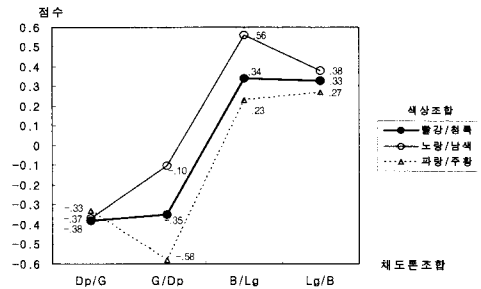
(3) 활동성 차원

채도 콘트라스트의 활동성 차원을 〈표 4〉에서 살펴보면, 색상조합과 채도 톤조합은 독립된 단서로 작용하여 활동성 이미지를 지각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MCA의 편차 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색상조합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노랑/남색은 동적이고, 외향적인 이미지로 평가된 반면에, 빨강/청록, 파랑/주황의 색상조합은 정적이고, 내향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채도 톤조합은 Dp, G 톤으로 조합된 Dp/G와 G/Dp 톤조합은 활동성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지각되었지만 B, Lg 톤으로 조합된 B/Lg, Lg/B 톤조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독립된 단서로 작용한 채도 톤조합은 색상조합, 의복스타일과 각기 상호작용하여 활동성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의복스타일과 채도 톤조합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7〉에서 살펴보면, 채도 톤조합에 따라 의복스타일 간에는 대체로 일관된 차의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도 톤조합이 Dp/G, G/Dp이면 정적이고, 내향적인 이미지로, B/Lg 또는 Lg/B 톤조합은 동적이고 외향적인 이미지로 평가하여 톤조합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7〉 활동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스타일과 채도 톤조합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8〉 활동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색상조합과 채도 톤조합의 상호작용효과

포멀웨어보다 캐주얼웨어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B/Lg 톤조합의 캐주얼 웨어가 가장 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그림 8〉의 색상조합과 채도 톤조합의 상호작용에서도 채도 톤조합에 따라 색상조합 간에는 일관된 차의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색상조합은 그림 7과 마찬가지로 B/Lg, Lg/B의 톤조합일 때 긍정적으로 지각되었고, 색상조합은 노랑/남색, 빨강/초록, 파랑/주황의 순이었다. 반면에 톤이 Dp/G, G/Dp으로 조합될 때는 활동적이지 못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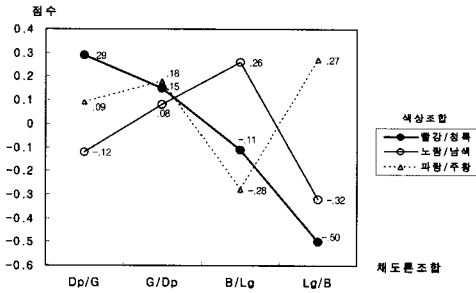
이상에서 활동성 이미지차원에서 채도의 톤조합이 가장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여 스트라이프 의복 착용시 활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의복스타일이나 색상조합보다는 채도 톤조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고명도의 채도 차가 큰 톤조합 특히, 노랑/남색을 B/Lg로 배색 하는 것이 가장 활동적인 이미지로 연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4) 현시성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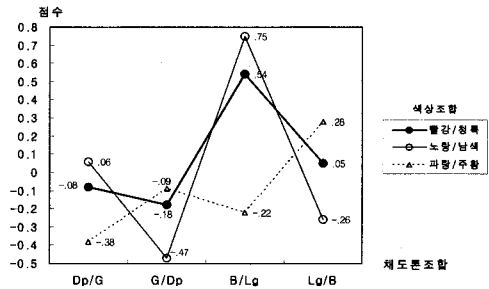
채도 콘트라스트에서 현시성 차원을 〈표 4〉에서 살펴보면, 문양방향과 의복스타일, 채도 톤조합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을 살펴보면, 품위성 요인과는 반대로 문양방향이 수직일 때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의복스타일은 포멀웨어일 때

강하고, 강렬하고, 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양방향과 의복스타일은 다른 단서와 상호작용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채도 톤조합은 Dp/G, G/Dp 톤조합, 그 중에서도 G/Dp일 때 가장 현시적인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 채도 톤조합은 색상조합과 상호작용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채도 톤조합에 따라 색상조합 간에는 일관된 차의 방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빨강/청록은 Dp/G 톤조합일 때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되었고, 채도 톤조합이 G/Dp, B/Lg, Lg/B 톤으로 순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매력성 이미지와는 다소 상반된 평가를 하였다. 즉 빨강/청록의 색상조합을 Dp/G 톤으로 배색했을 때는 매력적인 이미지는 낮지만 강렬하고 대담한 이미지로, Lg/B 톤으로 배색했을 때는 멋있고 매력은 있지만 현시적이 못한 이미지로 지각됨을 알 수 있다. 노랑/남색 색상조합은 채도 톤조합이 B/Lg 톤으로 노란색이 채도가 높을 때 긍정적으로 파랑/주황인 경우에는 B/Lg의 반대 톤조합인 Lg/B 톤으로 주황색이 채도가 높을 때 가장 현시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같은 톤조합이라도 어떤 색상의 채도가 높은지에 따라 그 이미지는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강하고 대담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빨강/청록의 색상조합에서는 빨강, 노랑/남색에서는 노랑, 파랑/주황에서는 주황에 채도가 높은 톤, 즉 배색된 색상 중 남색에 채도가 높은 톤을 배치할 때 현시적인 이



〈그림 9〉 현시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색상조합과 채도 톤조합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10〉 온유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색상조합과 채도 톤조합의 상호작용효과

미지를 더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온유성 차원

온유성 차원을 <표 4>에서 보면, 문양방향, 색상조합, 채도 톤조합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문양방향과 채도 톤조합이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였다. 또 색상조합은 채도 톤조합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력을 보면, 문양방향이 수평일 때, 색상조합은 빨강/청록, 노랑/남색일 때, 톤조합은 B/Lg, Lg/B 톤으로 고명도의 채도차가 큰 톤조합일 때 따뜻하고, 감성적이고, 부드러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조합과 채도 톤조합 간의 상호작용 효과들 <그림 10>에서 살펴보면, 채도 톤조합 중에서도 G/Dp 톤조합은 4가지 톤조합 중 3가지 색상조합 모두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각되게 하였는데 그 중 노랑/남색의 배색이 가장 부정적인 온유성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채도를 G/Dp 톤과 반대인 Dp/G 톤조합으로 대비시켰을 때는 3가지 색상조합 중 노랑/남색이 가장 온유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B/Lg, Lg/B 톤일 때도 색상조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채도 톤조합이 B/Lg인 경우 노랑/남색과 빨강/청록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파랑/주황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하지만 채도를 B/Lg 톤과 반대인 Lg/B 톤으로 대비시켰을 때 파랑/주황 배색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활동성 차

원과 마찬가지로 배색된 색상 중 따뜻한 색의 채도가 높을 때 온유한 이미지가 더 효과적으로 연출됨을 알 수 있었다.

온유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서는 의복스타일이 가장 고려된 반면에, 채도 콘트라스트 배색에서는 색상과 톤의 영향이 함께 고려되어 같은 이미지 차원이라도 명도 콘트라스트 톤 조합인지 채도 콘트라스트 톤 조합인지에 따라 의복 단서의 중요도도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문양 중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스트라이프 문양을 디자인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양 방향과 폭, 의복스타일, 콘트라스트 배색된 색상조합의 톤을 채도 콘트라스트로 변화를 주어 제작한 자극물로, 이것을 20대 여성에게 착상시킬 경우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한 것이다. 27개의 형용사쌍을 요인분석한 결과 매력성, 품위성, 활동성, 현시성, 온유성 요인으로 5개의 이미지 차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5개의 의복단서는 이미지 차원에 따라 그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났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력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의복스타일보다 문양방향을 고려하여 수평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색상배색은 채도 차가 더 크고 명도가 더 높은 B/Lg 톤조합의 파랑/주황과, B/Lg와 Lg/B

톤조합의 노랑/남색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품위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스트라이프 문양 방향이나 채도 톤조합보다 의복스타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포멀웨어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또, 색상 콘트라스트와 채도 콘트라스트 톤조합간의 상호작용이 품위성 이미지 지각에 중요한 의복단서로 인식되어 배색되는 2가지 색상 중 어떤 색상의 채도를 높게 또는 낮게 하는지에 따라 품위성 이미지는 다르게 지각되었다. 즉, G/Dp 톤의 빨강/청록이 품위 있지만 톤조합을 반대로 조합한 Dp/G 톤의 빨강/청록은 품위 없는 것으로, B/Lg 톤의 노랑/남색은 아주 품위 없는 이미지로 지각된 반면에 Lg/B 톤조합에서는 3가지 색상 콘트라스트 배색 중 가장 품위 있는 배색으로 지각되었다. 품위성 차원에서 색상 콘트라스트 배색조합과 채도 콘트라스트 톤조합은 지각단계에서 서로 상호작용하여 인지됨을 알 수 있었다.

활동성 이미지차원에서 채도의 톤조합이 가장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므로 의복스타일이나 색상조합보다는 채도 톤조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고명도의 채도 차가 큰 톤조합 특히, 노랑/남색을 B/Lg로 배색 하는 것이 가장 활동적인 이미지로 연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강하고, 대담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색상 배색 중 난색의 채도를 높게 했을 때 현시적인 이미지가 더 효과적으로 연출되었다.

활동성, 현시성 차원과 마찬가지로 배색된 색상 중 난색의 채도가 높을 때 온유한 이미지가 더 효과적으로 연출되었다.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서는 의복스타일이 가장 고려되었지만, 채도 콘트라스트 배색에서는 색상과 톤의 영향이 함께 고려되어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채도 콘트라스트 배색은 색상 콘트라스트 배색과 상호작용하여 스트라이프 착용자의 이미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의복단서로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연구한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서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조합은 어떤 색상배색과의 조합에서도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지

만 채도 콘트라스트로 배색 조합은 색상배색 때에는 5가지 이미지 차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색상 차가 큰 콘트라스트로 배색에서는 채도차가 큰 톤조합이 다양한 이미지 연출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색상차가를 때는 스트라이프 의복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명도차에 의한 영향이 적고, 채도차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한 本明寬(1979)의 의견을 뒷받침 해준다.

문양 폭을 제외한 문양방향, 의복스타일, 콘트라스트 색상과 채도톤조합이 의복착용자의 이미지에 각기 독립된 정보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각 이미지차원에 독립된 단서들이 지각단계에서 상호작용으로 통합되어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정보들은 지각단계에서 서로 통합되어 지각되므로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의복스타일과 문양배색, 방향에 따라 차이를 보여 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고 보는 Asch(1946)의 형태적 접근이론을 지지해 준다.

일반적으로 콘트라스트 배색은 너무 강렬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연출하기 힘든 배색으로만 인식되어 톤 변화를 고려한 실증적인 연구가 미흡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양 중 가장 기본적인지만 사용빈도가 높은 스트라이프 의복을 문양 방향과 폭, 의복스타일, 색상과 톤을 변화시켜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 패션 제품기획이나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변화나 디자인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콘트라스트 배색에 의한 스트라이프 의복디자인 기획시, 사회·문화·정치·경제 등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요소와 자극물을 지각하는 대상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영진, 정혜진, 박희주, 이주현, 조길수 (2002). 블록 스트라이프 패턴의 디자인 요소가 감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감성과학회지*, 5(3), pp. 21-28.
- 2) 이경희, 윤정혜, 박정순 (1990). 원피스 드레스의 줄무늬 시각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4(4), pp.

- 314-323.
- 3) Davis, M. L. (1987).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pp. 209, 218.
 - 4) 壁谷久代 加藤雪枚, 檜山藤子 (1980). 衣服に對する色彩と圖形の知覺について. *纖維製品消費科學誌*, 21(8), pp. 35-42.
 - 5) 문주영, 강경자 (2006). 상의 스트라이프의 방향, 폭, 색상대비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 학회지*, 8(3), pp. 1-15.
 - 6) Season's fashion trend (2005~2009). *InterFashion Planning Online*, retrieved 2009, October 5, from <http://www.ifp.co.kr>
 - 7) 08 S/S Trend Seminar (2007, 11. 30). *Malcom Bridge Online*, retrieved 2009, October 7, from <http://www.malcom.co.kr>
 - 8) DeLong M. R. (1987). *The way we look*. Iowa State University Press, pp. 92-93.
 - 9) 김혜수 (2003). 스트라이프에 내재된 리듬특성과 복식 디자인을 위한 자원화 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13.
 - 10) 설화정, 박희숙, 홍경희 (2003). 수직 스트라이프 패턴의 디자인 요소와 감성과의 관계 연구. *충남생활과학 연구지*, 16(1), pp. 1-15.
 - 11) 이영진, 정혜진, 박희주, 이주현, 조길수. *앞의 책*, pp. 21-28.
 - 12) 김주은 (2001). *의상 디자인 줄무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7-39.
 - 13) 이은영 (1992).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pp. 121, 176.
 - 14) Mark, H., Keith S. (2006). *Stripes*. RotoVision, pp. 38-67, 74-75.
 - 15) 조규화 (1995). *복식사전*. 서울: 경춘사, p. 305.
 - 16) 김혜수. *앞의 책*, p. 2.
 - 17) 이경희, 윤정혜, 박정순. *앞의 책*, pp. 314-323.
 - 18) Davis, M. L. *op. cit.*, pp. 44-46.
 - 19) 유금화 (2001). *여성 정장의 2색 배색에 의한 이미지 지각*.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4.
 - 20) 임지영 (2006). *셔츠와 넥타이의 배색방법에 따른 조화감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8.
 - 21) 本明寛 (1979). *造形心理學入門*. 김수석 역(1993). *조형심리학입문*. 서울: 지구문화사, pp. 133- 135.
 - 22) 김주은. *앞의 책*, pp. 37-39.
 - 23) 조민정 (2004).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색채조합에 따른 색채조화 유형과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51.
 - 24) 김주은. *앞의 책*, pp. 38-39.
 - 25) 양지영 (2005).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보색배색의 색채 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4.
 - 26) 강혜원 (2002).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p. 43.
 - 27) 팽숙경, 강경자 (2005). 착용자의 체형과 의복유형, 무채색 톤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9(9/10), pp. 1207-1218.
 - 28) 정혜선, 강경자 (2004). 헤어스타일·길이와 모자유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8(3/4), pp. 460-471.
 - 29) 김혜수, 김영인 (2004). 자연물에 나타난 스트라이프(stripe)의 선과 색채에 의한 리듬 특성. *한국색채학회지*, 18(1), pp. 45-56.
 - 30) 설화정, 박희숙, 홍경희. *앞의 책*, pp. 1-15.
 - 31) 이경희, 윤정혜, 박정순. *앞의 책*, pp. 314-323.
 - 32) 조민정. *앞의 책*, p. 51.
 - 33) 김수석. *앞의 책*, p. 129.
 - 34) 한국표준연구소 (1991). *한국표준색표집*. KBS 문화사업단, pp. 3, 7, 11, 23, 27, 31
 - 35) 문주영, 강경자 (2006). *앞의 책*, pp. 1-15.
 - 36) 문주영, 강경자 (2003). 상·하의 배색과 하의형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1), pp. 111-122.
 - 37) 설화정, 박희숙, 홍경희. *앞의 책*, pp. 1-15.
 - 38) 이경희, 윤정혜, 박정순. *앞의 책*, pp. 314-323.
 - 39) 문주영, 강경자 (2006). *앞의 책*, pp. 1-15.
 - 40) 문주영, 강경자 (2008). 명도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스트라이프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연구. *복식문화연구*, 16(6), pp. 992-1007.